

남기일표 '압박 축구' K리그1 재상륙

초반 다크호스 제주, 전북-포항전 포함 3경기 1실점 무패 남 감독 "선수들 경쟁력 발휘토록 팀을 만들어 가는 중"

강등 한 시즌 만에 프로축구 K리그1로 돌아온 제주 유니타드가 남기일 감독 표 '압박 축구'로 초반 선전을 펼치고 있다.

제주는 지난 9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K리그1 3라운드에서 1-0으로 승리, 1~2라운드 무승부 뒤 시즌 첫 승을 거뒀다.

성남 FC와의 1라운드 0-0 무승부를 기록한 제주는 디펜딩 챔피언 전북을 상대로 시즌 첫 득점을 올리며 1-1로 비기더니 지난 시즌 3위팀 포항을 잡고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개막 이후 3경기에서 2득점 1실점으로 승점 5를 쌓아 철저히 실리를 챙겼다. 특히 포항전에서 제주는 상대를 정신없게 만드는 압박으로 지난 시즌 K리그1 최다 득점(56골) 팀인 포항을 공포 묶어 눈길을 끌었다.

선발 스타플레이어로 나선 공민현, 자와다, 이규혁부터 강하게 압박을 시작해 스리백과 양쪽 윙백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활동량을 뽐내며 포항의 패스를 번번이 끊어냈다. 경기 시작 19분 만에 정운의 중거리포로 리

드를 잡은 것도 호재였다.

공격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던 일류첸코, 팔로세비치가 떠났지만 1~2라운드 5골을 몰아치며 연승을 거뒀던 포항은 제주의 '집식 수비'에 기세를 잊지 못했다.

K리그2 우승을 차지한 지난해 제주는 최다 득점 2위(50골)로 공격도 훌륭했지만, 실점(23골)이 가장 적은 팀이기도 했다. 조직력과 압박을 중시하는 남 감독의 축구가 제주에서의 두 번째 시즌에 접어들어 1부 무대에도 안착하는 모습이다.

"돌아온 만큼 1부에 잘 적응하고, 강팀과 맞붙었을 때도 물러서지 않고 제주만의 축구를 하고 싶다"는 구상이 맞아떨어져 가고 있지만, 남 감독은 "지금은 선수들이 경쟁력을 발휘하도록 팀을 계속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2득점이 수비수의 '원더골'로만 나온 건 아직은 아쉬운 부분이다. 공격 쪽에선 외국인 선수 3명이 완전히 가동되지 않아 100% 전력을 갖추려면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9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제주-포항 경기에서 제주 수비수 정운(왼쪽 첫번째)이 전반 19분 중거리포로 골을 터뜨리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제주 올 시즌 외국인 선수 진용을 완전히 새로 짰는데, 세 명 중 폴란드 연령별 대표 출신으로 관심을 끈 공격수 자와다만 K리그에 데뷔했다.

1~2라운드 교체로 나왔던 자와다는 포항전에 처음으로 선발 출격, 골을 터뜨리지 못했으나 후반 30분까지 무난하게 소화했다.

남 감독은 자와다에 대해 "보완할 점은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지는 게 보였다. 다음 경기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활약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남 감독은 "마음 같아서는 모든 선수를 바로 가동하고 싶지만, 아직 훈련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부상 우려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투입하며 팀원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면서 "세 명 모두 정상 가동 되려면 3월은 지나야 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K리그1 복귀 시즌의 스타트를 성공적으로 끊은 제주는 13일 대구 FC, 16일 울산 현대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 20일엔 광주 FC를 안방으로 불러들인다.

'0% 확률' 도전하는 삼성생명 KB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4위의 반란 삼성생명 1승 남아 벼랑 끝 KB 3연승 해야 우승

어느 팀이 우승하든, 여자프로농구에서 새 기록을 남긴다.

'이번의 주인공' 정규리그 4위 용인 삼성생명과 대역전극을 노리는 2위 청주 KB의 2020-2021시즌 챔피언결정전(5전 3승제) 3차전이 11일 오후 7시 청주체육관에서 열린다.

용인체육관에서 열린 1, 2차전에서는 올 시즌 최고의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삼성생명이 모두 승리했다. 1차전에서 KB를 76-71로 꺾은 삼성생명은 9일 열린 2차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84-83으로 승리, 챔피언 2연승을 달렸다.

삼성생명은 플레이오프에서 1위 팀 아산 우리은행에 1패 뒤 2연승을 거둔 것을 포함하면 포스트시즌 4연승을 기록 중이다. 정규리그에서도 하지 못했던 4연승이다.

2006년 여름 리그 이후 챔피언결정전 우승컵을 들어 올리지 못한 삼성

생명은 이제 1승만 더하면 15년 만에 정상에 오른다.

5전 3승제 도입 후 역대 챔피언결정전에서 1, 2차전 연승을 거둔 팀이 우승한 건 총 12회로 확률은 100%였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동시에 '0%'의 확률에 도전한다.

1998년 출범한 여자프로농구에서 정규리그 4위 팀이 챔피언 우승을 거머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삼성생명이 KB를 잡으면, 여자프로농구 사상 최초 정규리그 4위 팀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기록하게 된다.

벼랑 끝에 몰린 KB 역시 0%의 확률과 싸운다.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KB는 정규리그 1위를 우리은행에 내줬고, 챔피언에서도 2연패를 당해 삼성생명에 우승을 내줄 위기에 처했다.

역대 28차례의 챔피언 결정전에서 2차전을 연속으로 내준 뒤 3연승을 따내 우승한 팀은 없었다. 그 희박한 가능성에 KB가 도전장을 내민다.

KB는 삼성생명과 올 시즌 정규리그 상대 전적에서 5승 1패로 앞선 만큼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밀리지 않는다는.

연합뉴스



서효원의 눈빛 9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21시즌 WTT(월드테이블테니스) 콘텐트 여자 단식 32강전에서 서효원이 집중력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블로킹' 양효진 "언니들 정말 대단해요"

12년 만에 블로킹 왕좌 내려와 "선배들 몸 관리 놀라움 따름"

양효진(32·현대건설·사진)은 2009-2010시즌부터 2019-2022시즌까지 11시즌 연속 프로배구 여자부 블로킹 1위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프로배구 도드람 2020-2021시즌에는 '블로킹' 자리는 선배들에게 내준다.

양효진은 지난 9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의 방문 경기가 끝난 뒤 "생각보다 길게 1위 자리를 지켰다. 블로킹 1위 자리를 내준 건, 전혀 아쉽지 않다"며 "언니들이 블로킹 1위 자리를 다투는 게 신기하다. 나도 이제 꽤 나이를 먹은 선수인데, 선배들이 몸 관리를 하는 걸 보면 놀란다"고 했다.

베테랑 센터들의 블로킹 대결이 양효진에게도 좋은 자극제가 됐다.

10일 현재 여자부 블로킹 1위는 '블록의 센터' 정대영(41·한국도로공사)이다. 정대영은 세트당 0.718개의 블로킹 득점을 올렸다.

정대영의 뒤를 한송이(37·KGC인삼공사)가 추격 중이다. 한송이는 세트당 블로킹 득점 0.709개를 했다.

양효진은 블로킹 득점 0.517개로, 이 부문 7위다.

개인 통산 세트당 블로킹 득점이 0.827개일 정도로 무시무시한 블로킹 능력을 과시했던 양효진은 2020-2021시즌 초반에 극도로 부진했다.

양효진이 고전하자, 현대건설도 뒤로 처졌다. 하지만 최근 경기력은 상위권 팀 못지않다.

현대건설은 5일 2위 GS칼텍스와 폴세트 접전(2-3 패배)을 펼치더니, 9일 1위 흥국생명은 3-1로 꺾었다.

선배에게 얻은 자극과 팀 성적에 관한 아쉬움을 담아 양효진은 2021-2022시즌으로 시선을 옮긴다. 연합뉴스

10년 만에 축구 '한일전' 성사 25일 요코하마서 국내 평가전

코로나19의 장벽을 뚫고 10년 만에 한일 축구대표팀 평가전이 열린다.

대한축구협회는 10일 "일본축구협회와 25일 일본 요코하마의 닛산 스타디움에서 국가대표 평가전을 치르기로 합의했다"라며 "키오프 시간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친선경기로 치러지는 한일전은 2011년 8월 일본 삿포로 맞대결(0-3패) 이후 10년 만이다.

한국은 역대 한일전에서 42승 23무 14패로 앞서고 있다. 이번 한·일전은 역대 80번째다. 일본 원정으로 치른 30경기에서도 한국은 16승 8무 6패로 우세했다.

이번 한일전은 코로나19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일정 6월로 미뤄지면서 전격 성사됐다.

일본축구협회 실무진이 먼저 평가전을 열자는 제의를 했고, 정식 공문이 대한축구협회에 도착했다. 연합뉴스

2021 태양광 보조사업 설치희망자 예비모집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단독 주택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까지 지원
- '20년 기준 공사비의 50% 지원
- 공동주택 지원가능
- 타운하우스 등 단체설치 특별우대



상가 건물

- 사무실/식당/펜션/공장/병원/학원
- 설치용량 50kW까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적용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의 약 50~55% 지원

영업사원 모집

- 태양광 보조사업 영업 경력자 우대
- 태양광발전소(RPS) 영업경력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우대

▶이력서접수: 워크넷(work.go.kr)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